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Gender,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이 순 형**
강 사 이 옥 경***
박사과정 민 미 희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Yi, Soon-Hyung

Lecturer : Lee, Ok-Kyung

Doctoral Course : Min, Mi-H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ren's gender,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s were 80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46boys and 34girls) and 74 children in non-divorced families (37boys and 37girl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 assessing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teacher rated K-CBCL(withdrawal, depression/anxiety, aggressio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in non-divorced families perceived their parenting behavior more positively. Second, boys had more behavior problems such as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than girls. Third, children in divorced families had more behavior problems such as withdrawal, depression/anxiety, and aggression than children in non-divorced families. Fourth, children's withdrawal was affected by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were affected by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gender.

▲주요어(Key Words) : 부모의 이혼(parental divorce), 부모 양육 행동(parenting behaviors),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0-2003). 당해연도 총 이혼 건수를 당해연도 총 인구로 나누어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한 조이

혼율은 1990년에 1.1, 1995년에는 1.5, 2002년에는 3.0, 2003년에는 3.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혼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행동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에 한 해 동안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부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자녀가 1명인 가정이 30%, 2명인 가정이 35%, 3명인 가정이 4.7%였다. 이 수치를 적용해 볼 때 2002년도 한 해에 약 16만 명이 넘는 미성년 자녀들이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이순형 (E-mail : ysh@snu.ac.kr)

*** 교신저자 : 이옥경 (E-mail : invincible50@yahoo.co.kr)

새롭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전수정, 2003).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과 불안,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겪게 된다. 이혼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불안이 양부모가정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남숙, 1993; 홍순혜, 2004)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혼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우울과 불안, 위축의 문제를 더 크게 겪고 있다고 한다(Emery, 1991; Wallerstein & Kelly, 1980; Wolchik, Sandler & Doyler, 2002).

부모의 이혼 후 자녀들은 우울, 갈망, 슬픔, 분노, 소외감, 무력감,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오은순, 1998; Wallerstein & Kelly, 1980). 이혼가정의 많은 아동이 임상적으로 우울하며, 부모를 상실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과 관련성이 높다는 심각성을 지닌다(Benedek & Benedek, 1979). 이혼가정 아동들의 우울 정도를 양부모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연구들에서 이혼가정의 아동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동승자, 2000; 서지영, 2002; 이혜승·이순형, 2003; Peterson & Zill, 1986).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김성태, 1988; 동승자, 2000; 주소희, 1991). 동일시 대상의 상실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문제, 역할모방의 장애 등은 여아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 같은 과잉통제 행동을 남아의 경우 과소통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태, 1988).

아동은 연령 증가에 따라 사회적 세계가 확장되므로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도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것이 대단히 두렵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가족형태의 아동들과만 관계를 가지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친밀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Wallerstein & Kelly, 1980). Hetherington, Cox와 Cox(1982)에 의하면 이혼가정 아동들의 사회적 위축 경향은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좋아졌으나 친구를 포함한 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양부모가족의 아동들보다 적게 나타났다. 위축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를 차단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또한 이혼 가정 아동들은 비행과 공격성 그리고 반사회

적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들이 높은 공격성 및 행동장애 등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eterson & Zill, 1986).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공격성의 문제이다(홍순혜, 2004; Hetherington, Cox, & Cox, 1982; Peterson & Zill, 1986). 특히 이혼가족 남아가 양부모가족 남아보다 공격성 문제를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11세 아동의 외현화 문제, 특히 남아들의 문제는 부모의 결혼지위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의 자녀와 양부모가정의 자녀를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이 양부모가정 자녀에게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고(이애재, 1999), 비행성향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며(이삼연, 2002),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이혼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타났다(홍순혜, 2004). 또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지 조사가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들 또는 청소년들을 주로 연구하였으므로 유아나 아동 초기 어린이들을 포함한 결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보다 어린 이혼가정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기보고의 한계 때문에 그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간과되어왔다. 그러므로 어린 아동들이 보이는 어려움의 양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들의 발달상의 문제는 청소년들처럼 외형적으로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경과에 따라 누적되면서 후에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의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은 각 연령의 핵심적 발달 과업에서 나타나서 과업을 성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Emery, 1991) 이혼가정의 어린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성별은 가족구조와 무관하게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성별의 차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남아들의 부적응 정도가 높고 부적응의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왔다.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는 여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공격성, 비행, 충동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는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Amato & Keith, 1991; Emery, 1991).

이는 남아들과 여아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혼가정의 여아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들과 달리 여아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내면화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 높아도

외부적으로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부모 역할 행동이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난다(Emery, 1991).

이러한 성차의 발생원인은 양육의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 설명되어 왔다. 첫째,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에서 독단성이나 주장성이 크게 수용되어 왔기 때문에 혹은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해 남아들은 더 공격적이 되기 쉽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남아들은 자기통제감의 기준을 내면화하기 위한 확고한 훈육을 크게 필요로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밀관적인 훈육태도는 남아들에게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은 이혼 후 어머니나 여성친족의 보호아래 생활하기 때문에 동일시나 부모의 통제 등의 문제가 남아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Emery, 1991). 둘째,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양쪽 부모에 의해 더 많이 훈육받고 통제받기 때문에 그만큼 양육의 비밀관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고 부모간 파워싸움의 목표가 되기 쉽다(Emery, 1991). 셋째, 남아들은 부모, 동료, 교사들에게 도움을 덜 받기 때문에 부모 이혼 등의 스트레스에 독립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아가 여아보다 더 유능하고 성숙한 행동을 보이며(Santrock & Warshak, 1979) 사회적 능력에 있어서도 우수함을 증명하는 연구들도 있고, 이혼에 대한 아동의 단기적, 장기적 반응에서 성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다(Kurdek, Blisk, & Siesky, 1981). 또한 남아의 부적응성을 지지하는 국외 연구들은 아버지와 사는 남아보다는 어머니와 사는 남아가 더 많이 표집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Santrock & Warshak, 1979).

이혼가정 아동들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정 아동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행동 문제는 가족 구조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양육과 같은 가족 과정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Amato & Keith, 1991; Emery, 1991; Grych & Fincham, 1992). 일반적으로는 연구되어온 양육의 측면들은 부모의 따뜻하고 애정적인 태도, 부모의 반응성, 정서적 가용성과 같은 긍정적인 차원과 부모의 적대적 통제적 태도, 거부, 방임 등의 부정적인 차원이다.

이혼후 부모의 자녀양육은 아동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혼 후 양육부모들은 부모역할과 가사책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지지해주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자녀 양육 기술의 부족을 느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비밀관적이고, 더 거부적이며 덜 애

정적인 양육을 하는 경향이 크고(Hetherington, Cox & Cox, 1982), 이는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Peterson & Zill, 1986). 부모의 온화한 양육태도는 남녀아동 모두에게 이혼 후 경험하는 유기불안을 감소시켜 부모이혼으로 아동들이 경험하는 이혼스트레스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소희, 2004; Kurdek & Berg, 1987). 그러나 이러한 양육의 역할은 아동의 연령이나 경험하는 행동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홍순혜, 2004) 행동문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지 조사로 접근하기 어려운 유아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의 역할을 조사한 연구들도 많지 않고, 조사방법도 관찰이나 부모에게 조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에게 주관적으로 의미있는 지각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실제로 부모가 보이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지각하는 요소가 아동의 적응과 더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구조와 함께 가족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적 측면인 성별과 아울러 이혼가정과 일반가정이라는 가족구조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라는 가족과정에 따른 아동의 내면화, 외면화 문제행동의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혼가정 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아동의 행동 문제는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아동의 행동 문제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 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가정 아동 및 이혼가정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일반가정 아동		이혼가정 아동		계
	남	여	남	여	
만 5세 아동	10	16	10	14	50
3학년	12	10	19	10	51
6학년	15	11	17	10	53
전체	37	37	46	34	154

하였다. 14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동, 17개의 초등학교에서 3학년, 6학년 아동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초기 등 아동이 연령대별로 다른 연구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비교하여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이다.

일반가정 아동은 남아가 37명, 여아가 37명이었고, 이혼가정 아동은 남아가 46명, 여아가 34명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계 소득에 따라 150만원 미만은 하,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는 중, 300만원 이상은 상으로 구분한 결과, 상이 29.4%, 중이 32.1%, 하가 38.5%이었다.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계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측정도구

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Hazzard, Christensen & Margolin(1983)이 개발한 The Parent Perception Inventory(PPI)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각각에 대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9문항과 부정적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역코딩을 한 후 아동이 지각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를 합산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4점부터 70점까지이다.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9이었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를 합

산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 점수로 사용하였고, 이혼가정 아동의 경우는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점수를 두 배 곱하여 사용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정도를 각각 측정하여 이를 합산한 값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점수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 점수의 범위는 28점부터 140점까지이다.

2)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 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을 변안한 K-CBCL(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CBCL은 부모 평정용 척도인데,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담임교사들이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K-CBCL은 3점 척도인데, 아동의 행동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 위축

아동의 위축은 K-CBCL(오경자 외 3인, 1997)의 위축 척도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 참여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2이었다.

(2) 우울/불안

아동의 우울/불안은 K-CBCL(오경자 외 3인, 1997)의 우울/불안 척도 1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4점부터 7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우울한 정서와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6이었다.

(3)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은 K-CBCL(오경자 외 3인, 1997)의 공격성 척도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8점부터 9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타인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5이었다.

3. 연구절차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만 5세 아동 6명과 초등학교 3학년 4명, 6학년 3명을 대상으로 질문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14곳의 어린이집과 17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는 사전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원장 및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고, 담임교사를 통해 각 학급에서 이혼가정 아동과 동성 및 동수의 일반가정 아동을 표집 하였다. 일반가정 아동을 선정할 때, 담임교사에게 이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간에 인지 및 행동 발달 수준이 비슷하며, 이혼가정 아동과 학급에서 가장 친한 일반가정 아동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에 앞서 담임교사가 아동들에게 학교생활 및 부모자녀 관계 대한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고, 해당 학급에서 이혼가정 아동들과 일반가정 아동들 모두가 한꺼번에 조사에 응하도록 하여 아동이 가정환경 배경이 조사 대상 선정의 이유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 5세 아동은 어린이집의 별도의 공간에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과 아동이 일대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자가 문항을 읽어주고 아동의 반응을 들어 질문에 기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은 학교의 별도의 공간에서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의 지도 하에 5~6명이 동시에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아동의 검사에 앞서 담임교사에게 해당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질문지를 부탁하였고, 아동의 검사 후에 회수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Cronbach's α 값,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통계,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 그리고 변수 간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연령에 따라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행동 문제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차이

부모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 차이의 분석에 앞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F=2.994$, $df=1$, $p<.05$). 즉 일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부모 양육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의 전반적 경향

	성별	일반가정 아동		이혼가정 아동		전체	
		N	M(SD)	N	M(SD)	N	M(SD)
부모 양육행동 지각	남	37	134.65(16.96)	46	128.28(20.35)	83	136.64(19.50)
	여	37	138.62(21.81)	34	133.57(20.48)	71	136.36(21.22)
	전체	74	136.64(19.50)	80	130.37(20.43)	154	133.46(20.16)

<표 3>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분산분석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부모 양육행동 지각	성별		785.259	1	785.259	1.967
	이혼여부		1195.302	1	1195.302	2.994*
	성별×이혼여부 오차		15.752 58287.828	1 146	15.752 399.232	.039

*p<.05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차이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의 분석에 앞서,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행동 문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우울/불안($F=6.142$, $df=1$, $p<.05$), 공격성($F=12.109$, $df=1$,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아가 여아에 비해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위축($F=29.379$, $df=1$, $p<.001$), 우울/불안($F=22.643$, $df=1$, $p<.001$), 공격성($F=12.031$, $df=1$,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의 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행동 문제의 전반적 경향

행동문제	성별	일반가정 아동		이혼가정 아동		전체	
		N	M(SD)	N	M(SD)	N	M(SD)
위축	남	37	15.84(5.83)	46	19.73(5.14)	83	19.40(6.73)
	여	37	15.95(5.56)	34	22.26(6.05)	71	17.64(5.66)
	전체	74	15.89(5.66)	80	21.26(5.80)	154	18.31(6.32)
우울/불안	남	37	25.30(8.01)	46	31.65(7.65)	83	28.82(8.39)
	여	37	22.76(7.13)	34	28.10(6.73)	71	25.15(7.40)
	전체	74	24.03(7.64)	80	30.25(7.46)	154	27.18(8.15)
공격성	남	37	38.46(14.81)	46	47.50(15.20)	83	43.47(15.61)
	여	37	31.24(12.38)	34	38.43(13.75)	71	34.46(13.40)
	전체	74	34.85(14.04)	80	43.92(15.22)	154	39.45(15.29)

<표 5> 아동의 성별 및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분산분석

내면화 문제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위축	성별	53.641	1	53.641	1.650
	이혼여부	955.338	1	955.338	29.379***
	성별×이혼여부	63.657	1	63.657	1.958
	오차	4747.655	146	32.518	
우울/불안	성별	340.166	1	340.166	6.142*
	이혼여부	1254.012	1	1254.012	22.643***
	성별×이혼여부	9.378	1	9.378	55.381
	오차	8085.675	146	55.381	
공격성	성별	2429.586	1	2429.586	12.109**
	이혼여부	2414.018	1	2414.018	12.031**
	성별×이혼여부	31.378	1	31.378	1.156
	오차	29294.867	146	200.650	

*** p<.001, ** p<.01, * p<.05

3. 아동의 행동 문제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영향력

1)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부모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인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아동의 부모양육행동 지각은 위축($r=-.354$, $P<.001$), 우울/불안($r=-.216$, $P<.01$)과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이 낮았다.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동의 행동문제(위축, 우울/불안, 공격성)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여아는 0, 남아는 1로 더미(dummy) 코딩하여 사용하고, 부모의 이혼여부는 일반가정은 0, 이혼가정은 1로 더미(dummy)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표 6>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1	2	3	4
1.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				
2. 위축	-.354***			
3. 우울/불안	-.216**	.748***		
4. 공격성	-.150	.354***	.721***	

***p<.001, **p<.01

(1) 아동의 위축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789로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위축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위축에 대해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동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부모양육행동 지각 중 아동의 위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이혼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여부는 아동 위축의 18.2%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인은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다.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더해 아동 위축의 설명력을 8.5% 증가시켜,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은 아동 위축의 2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일반가정에 비해 이혼가정의 아동이, 아동이 부모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위축의 정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711로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해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성별 중 아동의 우울/불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이혼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여부는 아동의 위축의 14.7%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인은 아동의 성별이다. 아동의 성별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더해 아동 우울/불안의 설명력을 3.4% 증가시켜,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성별은 아동 우울/불안의 1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일반가정에 비해 이혼가정의 아동이, 여아에 비해 남아가 우울/불안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1.801로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표 7> 아동의 위축 관련변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β	R ²	t
위축	1단계 이혼여부	5.371	.427	.182	5.737***
	2단계 이혼여부	4.792	.381	.182	5.322***
	부모 양육행동 지각	-.092	-.295	.267	-4.127***

*** p<.001

<표 8> 아동의 우울/불안 관련변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β	R ²	t
우울/불안	1단계 이혼여부	6.223	.383	.147	5.048***
	2단계 이혼여부	5.903	.364	.147	4.843***
	성별	3.042	.186	.181	2.482*

*** p<.001, * p<.05

<표 9> 아동의 공격성 관련변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β	R ²	t	
공격성	1단계	이혼여부	9.070	.298	.089	3.792***
	2단계	이혼여부	8.214	.269	.089	3.541**
		성별	8.133	.265	.158	3.486**

*** p<.001, ** p<.01

여부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성별 중 아동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이혼여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여부는 아동의 공격성의 8.9%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독립변인은 아동의 성별이다. 아동의 성별은 부모의 이혼여부에 더해 아동 공격성의 설명력을 6.9% 증가시켜, 부모의 이혼여부와 아동의 성별은 아동 공격성의 15.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일반가정에 비해 이혼가정의 아동이, 여아에 비해 남아가 공격성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과 이혼여부,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위축,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가정 아동이 이혼가정 아동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이는 이혼가정 부모의 아동 양육이 일반가정 부모에 비해 비일관적이고, 더 거부적이며 덜 애정적인 경향이 크다고 보고한 연구들(Hetherington, Cox & Cox, 1982; Kurdek & Berg, 1987; Peterson & Zill, 1986)의 결과와 부합된다. 아마도 이혼한 부모가 받는 생활 스트레스가 과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긍정적이고 태도를 취하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부모에게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주소희, 2004).

남아와 여아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은 다르지 않

다. 이는 부모는 남아에게 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일반론과 달리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주소희, 2004; 최시원, 1997)는 선행연구들과 부합된다.

둘째, 이혼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위축되고, 우울하고 불안하며, 공격적인 정도가 높다. 남아가 여아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공격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이나 이혼가정에서 남아에게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Hetherington, Cox, & Cox, 1982)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여아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불안이 남아에게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 전이나 학령기 초의 어린 아동들이 연구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많은 부모들이 아동들이 학령전이나 학령기에 이혼하기 때문에 어린 아동들의 경우 부모의 이혼후 경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있을 것이며 이는 부모의 이혼후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기에 있는 어린 아동들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취약한 남아들이 내면화 문제에서도 여아들보다 심각한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 이전에는 우울한 경향에 성차가 없거나 남아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으므로(Angold & Rutter, 1992) 우울/불안의 성차는 연령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연령에 있는 남아들, 특히 이혼가정 남아들의 적응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울/불안에서 성차가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행동문제의 유형에 따라 관련되는 양육의 측면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동문제의 유형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남아와 여아에게서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남녀 아동의 우울/불안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양육 이외의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들과 부모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들이 위축되는 경향이 크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의미있는 타인을 상실하고 애착관계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타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위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이들이 실제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타인과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이혼가정 부모가 우울증이나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상태가 아동에게 전이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위축은 한창 대인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러한 대인관계가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의 적응과 관련이 커지는 전이적 시점에 있는 아동들의 발달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온정적, 수용적, 합리적인 행동을 비롯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이영, 나유미, 1999)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혼가정 아동들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이혼, 아동의 성별, 부모의 양육행동 지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위축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했을 때 낮았지만 우울/불안과 공격성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이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은 여러 측면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방식으로 아동의 적응과 연관된다고 한다(Pettit, Dodge, & Brown, 1988).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또한 건설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많이 방법들이 있으며, 부모는 이들 가능성들 중에서 자신의 양육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의 양육행동의 측면들은 아동의 위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불안이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양육의 여러 측면들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부모의 성별, 주양육자와 아동의 일치 여부, 가

정의 경제수준, 이혼후 경과기간 등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다 규모가 큰 표본과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차를 면밀히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유아기와 학령기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령전기나 학령기에 부모가 이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통계청, 2003) 부모이혼의 영향을 주로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된다. 부모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시간(5년 이상)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행동상의 문제를 보인다는 결과(주소희, 1991, 2004)를 고려해볼 때 학령기에 부모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발달과업과 더불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응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령전 및 학령기 아동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고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상해를 받지 않도록 이혼가정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7세 이전의 아동들이 정서적인 상태를 언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울/불안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연구대상의 선정과정과 평정과정에서 교사의 평가가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아동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입의 적절한 지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대상 아동 전체에 대해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지를 제시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감안할 때 5점 척도로 제작된 질문지가 만5세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 5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경력자로 아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검사자들이 아동과 일대일로 충분히 시간을 주고 검사를 실시하였고, 질문지의 내용을 읽어줄 때는 손인형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의 내용도 만5세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등 조사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응답시에는 척

도 간격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줄 수 있는 도형그림을 이용하여 아동이 많고 적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조사시기가 만5세 후반기였으므로 예비조사와 본조사시 만5세 아동이 질문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보다 적절한 조사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유아와 초등 저학년 아동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위축이나 공격성과 같이 본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해 아동의 학교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사가 평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03일

【참 고 문 헌】

김남숙(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태(1988). 발달심리학. 서울: 범우사.

등승자(2000). 이혼가정 아동의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우울,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오은순(1998).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4.

이애재(1999). 편부모 가족기능 요인에 따른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혜승·이순형(2003).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내면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 이혼가

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 인간 발달연구, 10(1), 11-29.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소희(1991). 이혼가정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소희(2004).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시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1990-2003). <http://www.nso.go.kr/cgi-bin/sws-999.cgi>.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 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Angold, A. & Rutter, M.(1992). Effects of age and pubertal status on depression in a large clinical samp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8.

Benedek, R. S. & Benedek, E. P.(1979). Children of divorce: Can we meet their need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55-169.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Emery, R. E.(1991).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Grych, J. H. & Fincham, F. D.(1992). Intervention for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Hazzard, A., Christensen, A. & Margolin, G.(1983).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49-59.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233-288)*, Hillsdale, NJ: Erlbaum.

Kurdek, L. A. & Berg, B.(1987). Children's beliefs about

-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Kurdek L. A., Blisk, D. & Siesky, A. E. (1981). Correlate of children's long-term adjustment to their parents' divorc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65-579.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net, 58*(5), 1308-1320.
- Santrock, J. W. & Warshak, R. A.(1979).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Issues, 35*, 112-125.
-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 Basic Books.
- Wolchik, S. A., Sandler, I. & Doyler, C.(2002). Fear abandonment as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9.